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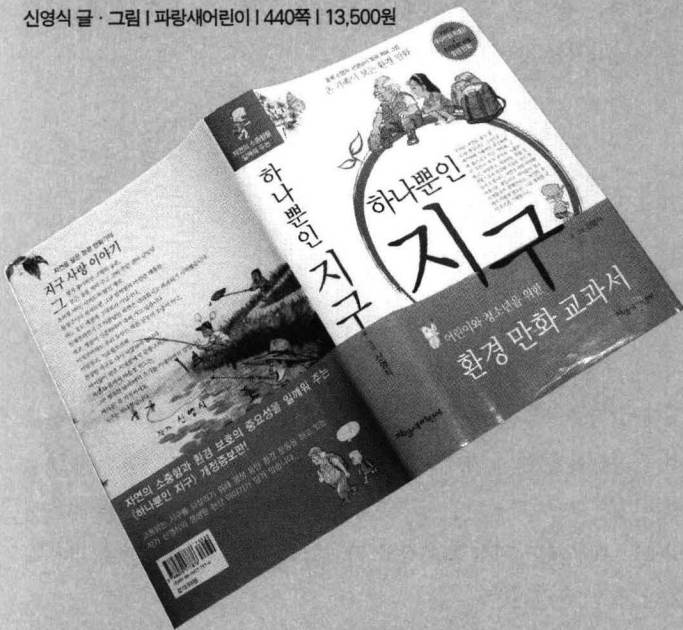
‘환경’ ‘공해’ 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1980년대, 오직 가방만을 꾸리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만화가 있었다. 작품구상을 위해서였지만 그의 눈에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환경이 먼저 들어왔다. 환경에 무지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힐수록 답답함은 늘어만 갔다. 그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혼자 힘으로 벅차다는 것을 깨닫고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에 가입, 본격적으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작품을 그려왔다. 만화가 신영식(55) 씨 얘기다.

## ‘작품’ 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자연의 위기’

### 답답증 안고 그린 눈물과 투쟁의 기록

〈하나뿐인 지구〉

신영식 글 · 그림 | 파랑새어린이 | 440쪽 | 13,500원



#### 자연과 시골을 좋아한 만화가의 ‘조용한 외침’ 이 책 한 권으로

1980년 <소년동아일보>에 <돌배>를 연재하면서 ‘돌배 만화가’로 알려진 신영식 씨는 그렇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질병”이라고 판단해 환경운동가인 최열 씨와 뜻을 같이하며 최씨가 만든 공해추방운

동연합에 가입했다. 지난 1998년에 출간된 《하나뿐인 지구》(푸름 미디어)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펼치며 틈틈이 그린 환경만화책이다.

“누구나 환경교육, 환경운동을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의식을 바꾸는 게 우선인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화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환경문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출간된 《하나뿐인 지구》는 출판사 파랑새어린이가 초간본의 판권을 인수하면서 펴낸 동명만화 개정판이다. 초간본 출간 이후 보충 취재한 내용과 2000년대 이후 환경사건들을 추가해 분량도 배가 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초간본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체르노빌 사건에서부터 우리나라 첫 공해병 환자인 박길래 씨, 수은 중독으로 희생된 열다섯 송면이 이야기, 고강동과 매향리 소음 공해 등 실제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1부에 담았고, 2부에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수질오염이나 농촌문제, 쓰레기 문제를 알기 쉽게 그렸다. 각 장 끝에는 ‘자세히 알려주세요’ 난을 통해 사건의 시발과 그에 관한 배경지식을 담았다.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담아내면서 초간본이 가지고 있던 ‘환경 만화 교과서’ 콘셉트를 이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어요. 본문은 워낙 꼼꼼하신 신 선생님이 마무리까지 된 원고를 넘겨주셔서 손이 많이 가지 않았지만 초간본 데이터가 없어 인쇄물을 스캔하다 보니 질 좋은 스캔 이미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림도 수정하고 판형을 맞추다 보니 보통 3, 4교에서 끝났던 교정도 10교까지 이어졌고요.”

이주연 편집자는 “이번 책을 편집하면서 다시금 저자의 고된 발품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편집자 입장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만화가 신영식씨

는 편하게 작업한 셈”이라고 말했다.

### 발품 팔아 취재한 현장기록, “의식 전환에는 충격이 필요”

그의 첫 환경만화는 1990년부터 <보물섬>에 연재하기 시작한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가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핵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로도 ‘빨갱이’로 몰려, 작품을 연재하던 신문으로부터, 그리고 <보물섬>에서도 작품을 거절당했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취재한 것을 정리하고 책으로 묶으면서 ‘환경’이라는 같은 주제지만 해양 오염, 핵폐기물, 대기 오염, 수은 중독, 소음 공해 등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매항리 폭탄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한·미 역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결국 다 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도 어려울뿐더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포 소음 공해사건과 함께 묶어 다루었습니다. 책에 담긴 사건들은 주민들의 끝없는 투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도 있지만 방치해둔 게 대부분이에요.”

환경단체에서도 외면한 국내 첫 공해병 환자 박길래 씨 사건도 담겨 있다. 그는 박씨를 살리는 데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다. 법정 소송에 승리해 공해병 환자로 인정받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끝내 박씨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책을 읽다 보면 국내 환경파괴 현장과 이에 대처하는 안이한 정책에 저자가 느꼈을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나온다.

7년 만에 펴낸 책이 여전히 주목받는 것도 이렇게 발품을 팔아 현장을 취재하며 투쟁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영식표 환경만화’는 목소리가 높다. 후자는 “아이들에게까지 심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는 정작 “충격이 없으면 의식 전환이 힘들다”는 소신을 꺾지 않는다.

“일부러 충격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런걸요. 단순히 휴지를 즐겁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 환경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엄마는 같은 편이잖아요. 유아환경교육 강연을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영 씨의 의견이 달랐지요. 결국 개인운동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딘가에 속박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강의를 나갈 때마다 허리 숙여 사죄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오염시켰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 앞이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서 환경운동에 관한 의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 식도암 말기 판정으로 보상받은 환경운동… 작품에 힘 쏟지 못한 아쉬움 남아

그는 환경만화를 그리는 것도 운동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월간 소년>과 <보물섬>뿐 아니라 환경에 관한 그림을 부탁하는 누구한테나 그려줬다. 그러다보니 잃어버린 그림이 한두 개가 아니다. 환경운동가인 부인 오진희 씨와 함께 반핵운동을 하면서 핵폐기장만 찾아다니다보니 생활도 엉망이 됐다. 답답한 마음에 이기지 못하고는 술을 먹고 의식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속을 태우니 몸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작년에 강화도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서 핵폐기장 건설지역에 강화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나서서 반대운동을 개시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단결하고 동참해서 다행히 강화도 핵폐기장은 무산됐습니다. 다행스런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병이 찾아왔어요.”

식도암 말기였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속앓이를 했던 십여 년 전부터 있었을 암세포였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강화도에서 작품구상을 하며 요양중이다.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환경만화를 쓴 대가에겐 너무 가혹하다. 그래도 그는 “책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다 다듬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한다. 병을 얻은 것보다 데모에 참여하고 현장을 다니느라 막상 작품에 힘을 쏟지 못한 게 맘에 걸린다.

아이들 앞에 고개 숙일 어른이 또 있을까. 책 머리말을 통해 전하는 그의 당부는 무척이나 절절하다.

오랫동안 정신없이 찾아다녔던 공해현장 답사는 잠시 중단했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 앞에서 무너지는 산처럼 최소한 몸과 마음도 지쳤고, 살려 달리는 나무의 비명에 제 몸도 병들어 갔습니다. 저는 지금 오랜 여행 끝에 아직은 덜 파괴된, 그리고 보호되어야 할 곳에 숨어 다시 일어 나기 위해 희망의 등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먹이 짓하는 도요새 무리들, 신사처럼 온사한 날개를 가진 재두루미, 이름 모를 수많은 새 소리들이 저를 치료합니다. 가끔씩 놀라서 무거운 중무덤을 치켜들고 뛰는 고라니가 저를 웃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주필

취재\_홍이현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